**제목 : 또다른 악몽**

**<잠에서 깨어난 엘리스>**

엘리스 : 또다시 밤이야.. 식욕도 없고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야.

엘리스 : 꿈에서 할머니가 나왔었어.. 3일밤만 버티라고 하셨는데.. 3일밤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? 만약 못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지?

엘리스 : 할머니의 보석들이 가짜였다니.. 그러고 보니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보석을 상속받았다고 했는데.. 그 뒤로 보석얘기를 한적이 없었어. 엄마한테 물어봐야겠어.

**<엘리스 방안>**

쌍둥이 인형 : 이건 삼촌들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선물로 준 인형이라고 엄마가 말해줬어. 그런데 오늘따라 저 인형들이 날 노려보는 것 같아...

곰 인형 : 어제도 꿈에 곰 인형이 나와서 날 도와줬어... 곰인형의 손이 조금 녹아있어..

토끼 인형 : 토끼 인형도 어제 꿈에 나왔었어. 이것도 역시 눈 주위가 검게 그을려져 있어.

여우 인형 : 여우도 마찬가지야. 발 부분이 조금 녹아있어.

**<문열고 나가서>**

엘리스 : 방안은 많이 더웠는데 복도에 나오니 너무 추워... 벽에 서리가 생길 정도야...

**<엄마와 대화>**

엘리스 : 엄마, 꿈에서 할머니가 나왔어. 그리고 잠에서 깨어보니 할머니가 사준 인형이 없어지고 보석감정서만 남아있었어.

집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니면 엄마가 한 거잖아. 요즘 잠에서 깨면 계속 밤이야. 밖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..

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? 엄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지? 제발 얘기 좀 해줘...

엄마 : 우리 엘레스니? 우리 엘리스는 항상 이렇게 씩씩하고 명랑했었지..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는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... 엄마는 슬프구나..

엘리스 : 무슨 소릴 하는 거야! 할머니가 3일밤만 버티라고 했어.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?

엄마 : 엘리스야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. 넌 이 집에 있어야 안전하단다. 밖에 나가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거란다.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은 그저 몸 상태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.

그리고 마침 네 삼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단다! 삼촌들이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구나.

엘리스 : 엄마.. 삼촌들은 3년전에 죽었어. 이제는 또 삼촌들이 내 꿈에 나오는 거야? 난 꿈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삼촌들과는 만나기 싫어. 싫단 말이야!

엄마 : 이런.. 많이 화났니?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삼촌들은 참 나쁜 짓을 해버렸어. 물론 그건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다음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.

그리고 지금도 삼촌들의 영혼은 악마에 사로잡혀서 네 영혼을 노리고 있단다. 그들을 벗어날 방법은... 잠을 자는 것 뿐이란다.

엘리스 : 어쩔 수가 없는 거야?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? 이렇게 불행하게 더 이상 살기 싫어!

엄마 : 어서 자러 가렴.. 난 다시 누워야겠구나... 잘자렴..

[엄마가 잠에 듬]

다시 엄마와 대화하면

엄마 : ... (엄마는 잠이 드셨다.)

**<방을 나와서>**

엘리스 : 도대체 죽은 삼촌들 얘기는 왜 하는 거야...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?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? 뭘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고!

엘리스 : 또.. 갑자기 너무 졸려... 난 이제 잠을 잘 수 밖에 없어..

**<보스전>**

제목 : 파멸을 향한 질주 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엘리스의 쌍둥이 삼촌들은 우애가 좋아 어떤 일을 하던 늘 함께 했고 엘리스를 끔찍히 아꼈다.

삽화2 : 삼촌들은 자라면서 구속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졌다.

삽화3 : 유흥과 도박으로 돈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변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렸고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은 점차 그들에게서 멀어졌다.

삽화4 : 하지만 삼촌들은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술에 취한채 언젠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다.

삽화5 : 그러다 엘리스의 할머니가 갖고 있는 많은 보석들을 떠올리고 그녀에게 찾아가 보석을 나누어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한다.

삽화6 : 할머니의 보석은 가짜였지만 그런 줄 모르고 보석에 탐이 난 삼촌들은 할머니 집에 불을 지른 후 보석을 훔치는데 성공한다.

삽화7 : 하지만 보석이 가짜인 줄 모르고 보석에 탐이 난 삼촌들은 할머니 집에 불을 질러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보석을 훔치려 했다.

삽화8 : 그러나 곧 경찰차에 쫓기게 되고 도망치던 삼촌들의 차는 절벽아래로 떨어져 강물에 빠지고 만다.

삽화9 : 그들은 익사한 채로 가짜 보석과 함께 발견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스는 강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이번엔 어디에 온 거지? 잠깐 여긴... 와본 적이 있어. 삼촌들이 아지트로 쓰던 방이야.

엘리스 : 그러면 이번에는 삼촌들이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?

아이스 그리드 :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카 엘리스! 너무 반가워!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저건 대체 뭐야?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... 이건 삼촌이야!

파이어 그리드 : 크크큭.. 엘리스, 이제부터 우리가 널 즐겁게 해줄거야! 뜨겁게 태우기도 하고 차갑게 얼리기도 하면서 우리처럼 너도 분리해 줄거야 키키킥... (빨간색 글자)

**<그리드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, 속는 셈치고 우릴 받아들여봐. 인생은 도박이잖아. 안그래? (빨간색 글자)

대사2 : 젠장,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!? 이건 내가 아냐. 엘리스 어서 도망쳐!

대사3 : 엘리스.. 아이스크림 좋아하지? 이 불덩이를 먹어봐. 온몸이 시원해 질거야 키키킥.. (빨간색 글자)

대사4 : 엘리스 내 몸에서 나오는 구슬을 주워서 나에게 던져!

대사5 :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얼리고~ 어때? 멋지지? 일로오면 바로 만들어 줄게! (빨간색 글자)

대사6 : 이 멍청아! 넌 왜 끝까지 이렇게 사고만 치냐.. 제발 엘리스를 내버려둬!

대사7 : 도망쳐도 소용없어 엘리스! 저항해도 소용없어 엘리스!! (빨간색 글자)

**<전투 종료 후 >**

파이어 그리드 : 젠장! 엘리스, 넌 우리와 함께 불타야 돼!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한다고!! (빨간색 글자)

그리드 (흰 그림자) : 미친놈.. 자유롭고 멋지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날뛰더니 결국 엘리스한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라니.. (하늘색 글자)

아이스 그리드 : 으아악... 영혼이 점점 사라진다... 빌어먹을! 엘리스를 얼려서 데려가면 그분의 밑에서 멋지게 살 수 있단 말이다!! (빨간색 글자)

그리드 (흰 그림자) : 엘리스, 삼촌들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.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쯤은 성실하게 제대로 살았어야 했는데..

우린 이제부터 벌을 받게 될 거야. 그래도 벌을 받고 죄를 씻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. 이게 다 네 덕분이야.. 정말 고마워..

엘리스 : 삼촌들.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..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?

할머니 (흰 그림자) : 엘리스.. 지금의 네 엄마를 전부 다 믿어선 안돼. 이제 악마 놈도 낼 수 있는 패가 얼마 남지 않았어. 끝가지 맞서 싸워야 해! 그럼 잘자렴... (하늘색 글자)

엘리스 : 삼촌 잠깐만!!

**<사망진단서>**

사망진단서

사망자1 : 안드레이 로스펠

사망자2 : 제롬 로스펠

사건요약

안드레이 로스펠과 제롬 로스펠은 새벽 1시경 모친 안나 로스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보석을 훔친 뒤 차량을 이용하여 도시외곽도로 방향으로 도주 중 추격중인 경찰차에 부딪히자 순간적으로 강물로 돌진하여 침수되었음.

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두 사람은 이미 익사하여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음.

부검결과 사망경위

1. 체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검출 되었음.
2. 안드레이 로스펠과 제롬 로스펠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됨.

특이사항

두 사람의 얼굴표정이 매우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음.

*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-